

# 신활력산단에 스마트허브단지 구축... 'ESG기업유치 마중물'

인구 5만2천명. 주민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고창군이 최근 큰 일을 냈다. 전국 228개 지자체 모두가 탐내는 삼성전자의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 세계 1위 삼성그룹의 전북도내 이렇다 할 사업장이 전무한 상황에서 투자유치의 막전막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철저한 보안 속에 이뤄진 투자협약

삼성전자와 고창군간의 협약은 올해 초부터 시작됐다. 그간 업체 측에서도 비공개로 고창을 여러차례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워낙 대규모 사업인지라 철저하게 외부노출이 자제됐다.

실제 투자협약이 체결된 지난달 25일 심덕섭 고창군수의 일정표에는 전북도청 출장으로만 되어있었다.

협약 당일 오후에서야 엠바코(보도유예) 사안으로 고창군청 출입기자단에 삼성전자 투자유치가 알려지게 됐다.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가 눈독 들이는 기업과의 협약인 만큼 보안에 더욱 신경썼다"며 "앞으로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 ▲삼성전자의 투자규모와 향후 일정은?

삼성전자는 고창신활력산업단지 18만㎡(축구장 25개 규모)에 3,000억원을 들여 스마트허브단지(가칭)를 구축한다. 민선 출범 이후 고창군의 기업유치 사례(관광사업 부문 제외) 중 투자규모가 가장 크다. 삼성전자 측이 밝힌 시설운영 중 직·간접적 고용창출 인원만 500여명 정도다.

특히, 전문 엔지니어와 시설관리 인력의 직접적 고용이 기대되고 있고, 시설보안관리와 급식, 청소, 운수 등에서 지역 일자리에 활력이 기대된다.

물류센터는 연내 건축설계 및 인·허가 승인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고창신활력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 부지 분양 계약 및 건축허가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사 중 건설·기계장비 등 고창

업체 우선 고려 등도 협의될 예정이다.

### ▲삼성전자가 짓는 물류센터 무엇이 다를까?

삼성전자는 고창에 AI, 디지털트윈, 로봇, 자율주행, 자동창고시스템(AS/RS) 등의 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첨단 물류센터 구축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전 물류의 기능은 조달 배송 등 단순 기능에서 기업의 경쟁우위 원천이라는 전략적인 개념으로 바뀌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삼성전자가 계획하는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자동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각 장비의 연동이나 유지보수 등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연스럽게 로봇, 컨베이어, 소터 등 자동화 장비 기업들의 연쇄 투자와 이전까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 ▲고창군민 대환영 "삼성전자 물류의 심장이 고창에? ESG기업유치의 마중물 되길"

고창군민들은 '삼성'이 들어온다는 것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각 모임·단체별로 거리 곳곳에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의 투자유치를 환영했다. 특히, 물류센터의 특성상 용수는 적게 사용하고, 폐수 발생량이 적어 주민생활 피해나 주변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수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관계자는 "로보틱스,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물류센터로 집중되고 있다"며 "삼성의 파급력을 고려해 볼 때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ESG기업 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전복도와 고창군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대규모 물류센터 조성 관련 삼성전자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김민영 도지사,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심덕섭 고창군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 올해 초부터 철저한 보안 속에 협약 이뤄져

18만㎡에 3000억 투입 스마트허브단지 조성 민선 출범 이후 군 기업유치 사례 중 투자규모 가장 커

군민들은 "대환영" 물류센터 특성상 용수 사용량이 적어 환경영향 최소화 장점

## 전북 산업구조 판 바꿀 일대 사건

심덕섭 군수, 선거 공약 'ESG기업유치' 정책에 날개



이번 삼성전자의 전북도 최초 투자유치로 심덕섭 고창군수의 선거 공약이었던 'ESG기업유치' 정책에 날개를 달게 됐다. 지난 8월에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인 (주)지텍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지텍은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1만평 규모로 올 하반기부터 생산설비 150억원 투자를 시작으로 3년간 총 300억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이다. 100여명의 고용인원 창출이 기대된다.

앞서 심 군수는 10년 넘게 제 역할을 못했던 '고창원빈산업단지'를 '신활력산업단지'로 과감하게 명칭을

제 역할 못한 고창일반산업단 신활력산단으로 명칭 변경 공격적 투자유치 활동 펴나가 "삼성과 협약 신호탄으로 ESG기업유치 등 최선"

바꾸면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펴냈다. 특히 전국 자동차부품 업체 등에 친서를 보내면서 신활력산업단지의 장점을 적극 어필했다. 서해안고속도로와 고창~담양간

고속도로 고창IC·남고창IC·선운산(흥덕)IC 3개의 직접 연결로 최상의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또 지정학적으로도 목포와 군산의 중간에 위치해 서해안 시대를 맞아 대중국 및 동남아시아 해양 및 육로 운송 물류 진진기지로서 급부상하고 있다.

심덕섭 군수는 "삼성전자의 투자유치는 고창군 나아가 전북 전체 산업구조의 판 바꿀 일대 사건이다"며 "투자협약을 신호탄으로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 첨단ESG기업유치와 원관부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3 문화공간이름 기획 프로그램

2023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 부캐의 시대

2023. 10. 6 (금) 7:30PM

문화공간 이름 ART SPACE

주최·주관 | 문화공간이름 후원 | 전북문화재단

티켓문의 | 전석초대 / 063. 223. 5323

본 공연은 (사)한국문화재단에서 2023년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 인건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